

“역사상 가장 큰 불법 재판”

■ 이종윤 원로목사

유명 인사나 역사의 획을 긋는 인물이 재판을 받을 때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가령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소크라테스, 영국의회에서 섰던 찰스1세, 위튼베르크의 나치 전범들의 재판이 그런 것들이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의 목사 면직을 판결한 평양노회와 일제의 법원은 불법적으로 그를 죽였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관심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다가 33년의 공생애를 마감한 예수님의 재판은 그의 체포 그리고 유대인 재판 3차례, 로마 재판 3차례 6번의 재판을 받았으나 이 모든 재판이 법리론적으로 불법이고, 관행적으로도 이해가 어려운 만행이었다.

유대인의 재판

대제사장 안나스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에서 예수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였다. 재판장의 관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로마 정부가 안나스를 증거 대제사장으로 만들고 그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지명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는 질문을 하여 “네가 말했다”고 예수가 대답하자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고 예수는 즉시 저주를 받았다. 그들은 준비 없는 재판을 했다. 준비가 있었다면 예수를 고발할 때 증인을 준비했어야 한다. 가롯 유다의 돌발적 행동에 따라 그들은 갑자기 재판을 한 것이다. 미쉬나에 의하면 ①무익한 증인 ②상비되어 있는 증인 ③확증된 증인이 그것이다. 늦은 시간 짜 맞추기식 증인들은 수는 많지 않았지만 무익한 증인들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 “성전을 헐고 삼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말씀은 “자기 육체를 가리킨 말씀”이거늘 가야바 같은 인물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할 수도 없었지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되심을 선포하신 뜻을 깨달을 수도 없었다.

예수 십자가 사건 후 유대 지도자들은 “속이는 자가 말하기를” 사후 후에 내가 살아나리라 했다고 빌라도에게 보고했다. 그래서 삼일 동안 무덤을 수직케 했다. 예수의 신성과 그의 말씀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증명되었다. 두 증인의 증거는 채택되지 않았다. 예수가 말한 장소가 정확지 않았고 두 증인의 증언 자체가 일치하지 못했다. 3년 전의 일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야바는 유월절 늦은 시간에 예수를 체포했다. 대제사장은 사형에 처하는 재판에서 중재는 금지되어 있다. 다른 법정 회원이 투표를 한 후에만 자기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를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일방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가 메시아로 물은 것은 아니었다. 예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하실 때 예수를 신성모독자로 몰아 “사형에 해당한다”고 했다. 증거가 불충분했고 불법적 재판을 했다. 예수의 말씀에 대한 사실 규명이 없었다. 메시아 예언이 있는 구약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했어야 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지 않은 산헤드린의 재판을 한 것도 불법이었다. 재판 장소는 히브리 율법상 산헤드린이어야 한다. 판사의 자격은 산헤드린 회원만으로 되어 있다. 증인도 공격받는 죄에 대해 완전히 아는 자라야 한다. 재판에서 저주의 선고는 반대편 변호 없이 내려졌다.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만장일치의 결정이라면 거짓 결정이었다. 거짓된 재판은 원시적·야만적·부정적 재판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분이 범하지도 않은 자기 죄로 죽는 자로 만든 것이다. 밤에 체포한 일, 변호할 기회가 없었고, 하루에 재판을 종결 사형 언도를 한 것은 불가한 것이고, 재판장에서 예수를 구타한 일, 예언대로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신 메시아를 죽인 것은 역사상 가장 큰 불법재판이었다. 산헤드린 앞에서 야간재판을 안 하고 새벽에 재판을 받았다. 여기서 예수는 빌라도에게 보내졌다.

로마의 재판

즉 교회 재판만 아니고 시민 재판에도 회부되었다. 갑자기 재개한 빌라도 재판에서 그는 무죄한 예수를 석방하려 했다. 갈릴리 사람인 예수를 분봉왕 헤롯에게 넘겨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다시 빌라도에게로 넘겨졌다. 자기 죄가 없는 예수는 법대로가 아닌 여론에 밀려 사형 언도를 받았다. 백성들의 바나바를 살리라는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 1574호] 2017년 12월 2일 발췌-

4월 12일 부활주일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마땅히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부활의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현재의 코로나 바이러스 추세로 볼 때 예년과 같은 형태로 부활주일에배를 드리는 것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의 집회 안전수칙을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회에서의 예배를 병행하되 성도간 거리두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수 없어 본래의 주일 1,2,3부 이외에 임시로 오후 4시에 4부 예배를 신설하여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한 번에 약 백여 명만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장소가 협소하여 주일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들과 감염에 취약한 연로하신 어르신을 모시고 있는 가정들은 양보하시어 이전처럼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특히 발열이나 호흡기질환 증후가 있는 분 또는 최근 2주 이내 해외를 다녀오신 가족이 있는 성도님들은 교회예배 참여를 피해 주시고 대신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이지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모일 수 없어 성찬식은 가지지 않습니다. 또 부활주일 새벽예배와 오후 찬양예배도 가정에서 온라인 설교영상으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 당회 드림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전도사 박미라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야),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규(카자흐스탄), 이경연,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강화정, 우상식(강릉(인도), 서광종(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애(말라위), 김영호(서항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파파, 사지, 에복(인도), 스프로터(루이, 필리프 프란소, 수레시, 슈비시, 일로롱, 비사누(보도, 보다소프, 린름, 수관준(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정상진(홍성일(필리우), 이재울(박병진(캄보디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 온전히 합하라 ”

■ 고전 1:10-11
본문은 교회의 분쟁에 대한 사도의 처방입니다. 가정 붕괴 현장이나 교회 분쟁의 모습은 이 시대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 **부분적이 아닌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라**
사도는 본문에서 매우 부드럽고 강한 어조로 성도들이 온전히 합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바울이 교회 지도자로서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합하라’는 것은 선택 사항이 필수적인 일이지요 반드시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이 교회가 한 몸이요 한 몸이어야만 함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쟁과 다툼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찢는 일을 가장 원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고소고 발이고 참소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면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었던 가정이나 교회가 썩대밭이 됩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영어의 'Perfectly joined together'라는 말의 헬라어의 본래 뜻은 ‘원래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 됨의 그 상태로 되돌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어 원수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하나 되게 하신 그 방편을 우리가 실천하게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엡 2:13). 사방에 서로 반목하고 흩어져있는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길은 물리적인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뿐입니다.

2.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
본문의 한 구절에서 사도는 온전히 합하는 또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라는 것은 헬라어 ‘토 아우토 레게인’으로 'speak the same thing'이라고 하는데 ‘그 동일한 것을 말하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입을 벌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룩하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만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생각하고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 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원심력은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의 목회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명령합니다. 교회가 내는 소리가 다양한 것 이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란 우리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의 원인은 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 내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계시된 것뿐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 모두가 고개를 숙이면 됩니다.

맺는 말
가정도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주님의 목적대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파괴하려는 악한 마귀의 교활한 공격을 막아내고 더욱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서로 온전히 합하십시오.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희생의 사랑으로 하나 됨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분쟁이 죄인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되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우리의 권리라 할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희생이 따를지라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들의 발걸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땀을 주님은 반드시 능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들로 인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새 역사를 풍성히 이루어가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 서정원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노문환 장로
II 오전 11시20분	전재홍 목사	최형열 장로
III 오후 2시	서명철 목사	최광성 장로
IV 오후 4시	장석남 목사	이관규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고전 15:20-21...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6(8).....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33(부활절 1)....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159(149)....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2부 마 28:1-10, 16-20
 3,4부 요 11:25-2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 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1,2부: 부활의 아침에 받은 위대한 메시지 이중윤 목사
 3,4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서창원 목사
 * 찬 송 Hymn165(15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이수정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IV 부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영어예배	예루살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 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마 28:10)				
수요 I 부					금주의 성구					
수요 I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가족 중 어른, 설교 서명철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요 11:25-26 인 도 자
 찬 송 161(159) 다 함 께
 기 도 가 족 중
 성 경 수 1:10-18 인 도 자
 설 교 ... “모두 함께 요단을 건너자” ... 인터넷 영상
 찬 송 347(382) 다 함 께
 주기도 다 함 께

수요예배
(개 인 기 도)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언·박수강·김복희
 설 교 조원영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이번주 심방 일정
 1-1, 3-5, 8-4, 9-6, 10-4, 12-5, 13-8다락방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새벽기도
1,453명	437명	1,890명	2,367명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입, 지출 내역보고(4/5)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4월5일	헌 금	10,677,000	
	교회학교운영비		238,200
	선 교 비		200,000
	출 판 비		200,000
	복리후생비		261,450
	통 신 비		839,850
	차량유지비		1,002,100
	소모품비		30,300
	수선유지비		40,850
	식당운영비		197,510
	합 계	10,677,000	3,010,260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확산에 따른 서울교회 영상예배 지침

-주일 영상예배 지침-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예배 준비와 예배 자세에 관한 아래의 지침을 따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먼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여 주십시오.
 ② 예배자로서의 옷차림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복장과 자세 모두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가 장소만 바뀐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경건하게 예배드리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예배 시작 5분 전, 마음을 모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여 주십시오.
 실시간 영상은 5분 전부터 방송됩니다.
 ④ 예배순서에 적극 응답하며 참여하여 주세요. (“아멘” 댓글 작성 등)
 * 기원기도, 신앙고백, 성경봉독과 설교 시 응답, 찬송, 봉헌 등
 ⑤ 축도(폐회기도) 후, 1-2분간 개인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⑥ 헌금은 실시간 예배의 헌금시간에 맞추어 따로 준비한 접시나 바구니에 구별하여 드리고, 추후 교회의 주일예배가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을 때 함께 드리시면 됩니다.